

2021년 6월 3주 |

키움 ESG Week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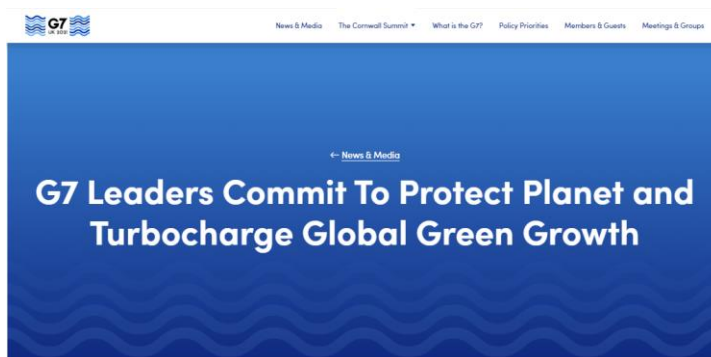


Weekly Issue:

G7 정상들, 녹색성장 가속화를 위해 약속하다

- 6/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진행 됨.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이었음
- G7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 및 글로벌 녹색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영국은 해양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5억 파운드 규모의 Blue Planet Fund를 출시. G7은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되돌리기 위해 'Nature Compact'을 채택
- 13일에는 G7 기후변화-환경 의장성명을 채택.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기후 재원 마련,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모든 국가 및 기업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도 상향된 2030년 NDC 목표를 오는 11월 UN COP26에서 발표할 것을 재확인

G7, 지구환경 보호 및 글로벌 녹색 성장 가속화에 합의



자료: G7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6/7~11)

▲ 기후 및 환경 관련

6/6	<p>Climate change: measuring transition risks from net zero global challenge, central bankers, policymakers tell Green Swan Confer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 각국 정책 입안자들, 고문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모여 2021년 'Green Swan Conference' 개최.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들은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고, 기후 관련 목표를 금융 정책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 -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등 담보자산 가치 하락 등)는 상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는 더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영향력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저탄소 경제로 무질서하게 전환할 경우 일부 산업은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현재 많은 기업들이 TCFD 권고 사항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보고하고 있으며 많은 중앙은행들도 이를 따르고 있지만, 기후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한 보편적인 프레임워크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상존하는 상황 <p>https://yhoo.it/35i9HSs</p>
6/7	<p>중앙은행도 기후변화 대응 적극 나선다... '그린스완 컨퍼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당국자, 기업, 금융기관 관계자,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그린스완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향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참여 선언 요구를 강화한다는 데 동의 - 한편, 전반적으로 기관 간 협력 부족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 중앙은행의 정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 노출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더 적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제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등장 <p>https://bit.ly/3wcKy70</p>
6/7	<p>Climate crisis to shrink G7 economies twice as much as Covid-19, says resea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2.6도 상승할 경우 G7 국가들의 경제손실이 2050년 까지 \$5조 규모, GDP의 8.5%로 전망 됨. 이는 G7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입은 GDP 감소 규모의 2배 수준 (Swiss Re Institute & Oxfam) - 이번 연구는 지구 온도 상승이 ▲농업 생산성 ▲건강 ▲노동 생산성 ▲해수면 상승·경제활동 지역의 홍수 위험 ▲가계의 에너지 수요 ▲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DP 변화를 추산 -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기후 대응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현재 정책과 공약 수준이 파리 협정의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지적 <p>https://bit.ly/3gpamH2</p>
6/8	<p>G7, TCFD 의무화에 동의... 현지 언론 "역사적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재무장관, 기업이 기후 영향과 이에 따른 투자결정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 범죄 단속을 위한 중앙기업의 수익 소유권 등록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로 약속. 실행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G7 국가가 이에 동의한 만큼 G20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될 가능성 높은 상황 - 또한 G7 재무장관들은 TCFD 의무화 방안을 지지. G7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TCFD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 차원에서 민간 금융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 <p>https://bit.ly/3zbfF5t</p>
6/8	<p>TNFD 본격 가동...2023년까지 관련 재무정보 공시 틀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을 맞이해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출범. 지난 2015년 발족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관련 공시 표준화의 모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TCFD가 기후변화를 중심에 두고 인간에 미치는 위험을 주목했다면, TNFD는 "자연자본"을 중심에 두는 것이 특징. TNFD의 프레임워크는 UNEP, UNDP, Global Canopy, WWF 등이 참여해 공동 개발하게 될 예정 <p>https://bit.ly/3x8iOB7</p>
6/8	<p>전기차 시대 핵심 자원 리튬을 둘러싼 ESG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녹색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채굴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 특히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리튬 생산 방식은 인근 농경지의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중. 뿐만 아니라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에서는 토착 주민들의 리튬 생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해당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리튬을 생산하려면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p>https://bit.ly/3w6E1vc</p>

6/9	<p>Britain takes step to classifying 'green' invest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친환경적인 자산을 분류하고 그린워싱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구성. GTAG(Green Technical Advisory Group)는 '택소노미' 이행 과정 및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규제하는 공동 프레임워크를 감독할 예정 - GTAG 는 학계, 기업, 금융업계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영국 내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개발 및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할 예정. 존 글렌 재무부 장관은 영국의 그린 택소노미 개발이 향후 기업,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융활동에 있어 친환경적인 결정을 내리고, 탄소 중립(Net-Zero) 상태로의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p>https://reut.rs/3gn56U3</p>
6/9	<p>U.K. Calls For Climate 'Marshall Plan,' But Will The G7 Deliv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G7 정상회담 앞두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구축할 것을 촉구. 존슨 총리는 세계 경제 강대국들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이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구축을 지원해야한다고 언급 (The Times) - Mabey 유럽 기후 싱크탱크 'E3G' CEO, 이번 G7 정상회담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갖고 보는 회의 중 하나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1)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위한 코로나 지원 패키지, 2) 기후 정책 3) 인프라 투자 실현 방법 등이 우선 순위로 매겨져야 한다고 설명 <p>https://bit.ly/3x5A4a0</p>
<p>▲ 기타/통합</p>	
6/7	<p>Biden Administration ESG Activity Accelera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5월 20일(현지시간) 기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 공시. 행정명령은 SEC에서 진행중인 ESG 리스크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을 토대로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 일관성있고, 명확하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위험 요소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국가경제위원회와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120일 내로 정부 프로그램,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식별 측정 평가 공개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함 <p>https://bit.ly/3g6Rqha</p>
6/8	<p>The SEC's Push on ESG Disclosure Regula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DEI(포용·평등·다양성) 이슈를 포함한 이니셔티브 개발 및 규제 프레임 워크 구축 작업 가속화. 이번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중요한 ESG 동인 및 측정법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이번 작업을 통해 SEC는 ESG를 정의하고 ESG 이니셔티브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전담하게 될 것 - SEC의 프레임워크는 "materiality"의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각각의 ESG 요인들은 표준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석되어야 함. 분석 과정 중에는 ESG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리스크 요인들에 순위를 매기는 것 또한 필수. materiality analysis를 통해 각 기업들의 특성 파악 가능하며, ESG 요인은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기에 단일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 <p>https://bit.ly/2TgIX1S</p>
6/8	<p>투자자들, 낮은 수익률 감수하더라도 ESG 투자 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모기저론 대출회사 BML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는 이미 ESG 투자에 나섰고, 25%는 2025년까지 나설 의사가 있다고 답변. 특히 18~34세 사이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48%까지 확대 - 또한 투자자의 22%는 투자를 결정할 때 ESG가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응답. 29%는 앞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자산의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밝힘 - 이와 별도로 보험사 프루덴셜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51%는 ESG 분야 투자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 61%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 비해서 환경과 지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대답해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상승 계기가 코로나 19 사태인 것으로 밝혀짐 <p>https://bit.ly/2So7qCl</p>
6/9	<p>The World's Biggest Investors Get Louder About ES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ESG에 대한 목소리 표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Neuberger Berman은 주총 시즌(Proxy Season) 동안 30개가 넘는 기업들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블랙록은 정기적으로 자사의 계산판을 통해 투표 현황을 게시함. 뱅가드 그룹은 최근 엑손모빌 이사회 개편과 관련해 어떻게 투표했는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음 - 올해들어 현재까지 169건의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 제안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34%의 지지율을 기록. 이중 29개의 결의안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173개의 결의안들과는 다소 비교되는 상황 (Bloomberg Intelligence) <p>https://bloom.bg/3v6ple9</p>
6/10	<p>거래소, 스몰캡 리서치센터 ESG 포털 연내 오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 스몰캡(중소형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리서치센터와 ESG 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중으로 개설할 계획. ESG 포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ESG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라는 방침 - 더불어 거래소는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와 투자성과를 연동한 지수와 ETF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p>https://bit.ly/3gb908S</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기업 ESG 동향 Update (6/7~11)

▲ 기후 및 환경 관련

6/8	<p>Mining Companies Call Themselves Green in Push for Investor Cas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광산/채굴 기업들, 최근 풍력 터빈 및 송전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리튬, 구리, 코발트, 니켈 등 금속 물질들은 앞으로 친환경 기술, EV, 에너지 스토리지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 요소로 부각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채굴은 앞으로 몇 년 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탄소 배출 절감에 초점 맞춘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광물 채굴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 예를 들어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수요는 2030년까지 30배 증가 전망 <p>https://on.wsj.com/3pLzCvq</p>
6/10	<p>지멘스, 2035년 해상풍력으로 경제적인 수소 생산 가능해질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기 대형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멘스가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발표. 기존 주력기종의 1.5배 이상 출력의 대형 발전기를 해상에 설치해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만들어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대체할 목적 - 지멘스에너지에 따르면 현재 8,000만톤의 수소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중 1%만이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제된 순수 녹색 에너지원인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연간 8억 3,000만톤의 탄소를 배출해야 얻을 수 있음. 다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생산은 비용적인 문제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하지만, 지멘스는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해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육상 풍력 터빈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 <p>https://bit.ly/3zhxOq2</p>
6/10	<p>아마존, 구글 등 '기후 솔루션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 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기후 솔루션의 투자 규모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연합체 '기후 솔루션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ASCS, Business Alliance to Scale Climate Solutions)'을 결성 - BASCS 연합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협력해 기후 위기 해결책에 대한 연구분석, 투자, 자금 지원 등 여러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 - BASCS 회원사들은 과학 기반 목표에 기반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기후 목표 달성 및 탄소 배출 감축을 강조하는 핵심 원칙에 동의해야 함. BASCS은 다음 4가지 핵심 원칙에 기초: ▲배출량감소 ▲행동 실천 ▲측정가능한 영향력 ▲공동이익 <p>https://bit.ly/3witic9p</p>
6/10	<p>Amazon launches workplace-safety pledge, acknowledges it 'has work to 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 커머스 대표 기업 아마존, 노동 현장 안전 서약서 공개. 전미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와 함께 새로운 작업환경 안전 이니셔티브 구축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1,200만 지출할 계획이며, 경쟁사들 대비 높은 물류창고 부상자 문제를 함께 다룰 예정 - 아마존은 10일 (현지시간) 근골격계 질환 및 MSD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개발 자금 제공 계획을 비영리 단체에 발표할 예정. 또한 다른 고용주들이 부상 현황을 추적하고, 이를 절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SD 서약도 시작할 계획 <p>https://wapo.st/3gpbzf9</p>
6/11	<p>Business week, 50개 글로벌 기업... '친환경 분야' 기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50개 기업 중 친환경 분야 기업이 10개 선정 됨. 세부 분야는 ▲ 전기차 ▲ 친환경 소재 ▲ 친환경 에너지 ▲ 폐기물 처리 4가지였는데, 특히 2020년에 친환경 분야 해당 기업이 2개에서 10개 기업으로 증가한 점이 주목 됨 - 한편, 매년 상위 50개 목록에 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은 사라짐. 대신 전기차 관련 기업이 총 3개를 기록했는데 해당기업은, ▲엘버말(리튬, 미국) ▲ 웨이치이 동력(연료전지, 중국) ▲ LG 화학 (석유화학 및 배터리, 한국) - 소재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억제로 인한 재활용 소재 제조기업, 탄소 절감형 건축자재 생산 기업이 주목받음. 친환경 소재 분야는 2020년 0개였으나 올해 3개로 증가. ▲그래픽 패키징(종이 포장재, 미국) ▲ 생고병(건축자재, 프랑스) ▲ 헨켈(생활용품, 독일) 순 <p>https://bit.ly/3pP1dvC</p>

▲ 기타/통합

6/7	<p>Shareholders Up Demands for Workplace Diversity Data Seen by Fe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노동자 성별 및 인종 다양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주중 시중 동안 비밀스럽게 정부에만 제공했던 데이터들을 공개적으로 공시하라는 제안들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음 - 기업 노동력의 인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EEO-1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유사하게 인력의 DEI(포용·평등·다양성)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주주 제안이 (6월 1일 기준) 총 10건 제안됨 -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노동력의 다양성과 관련된 데이터 공개를 기밀로 처리하는 반면 리테일 대표 기업 월마트와 스포츠 의류 대표 기업 나이키가 EEO-1 데이터를 공개기로 결정해서 화제 <p>https://bit.ly/3cvha4S</p>
6/7	<p>Nestlé, Danone appoint new heads of sustainability; Salesforce, Amazon make big mo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식품 대기업 네슬레, 다농, 범블비가 기업 내 지속가능성 전략 담당자를 채용한데 이어, GE, 세일즈포스 등과 같은 대형 테크 기업들 또한 기업 내 지속가능성 담당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 더불어 반도체 제조업체 Semtech, HR 및 직원 관리 플랫폼 Medallia, 대형 회계법인 EY 등은 기업 내 ESG 담당자를 고용하면서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을 반영. 뿐만 아니라 금융 업계에서도 친환경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 및 지속가능성 책임자를 고용하는 추세 <p>https://bit.ly/2SyHsFf</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6/7~11)

▲ 주식 및 펀드 시장

6/7	<p>Small Caps Remain an Untapped Avenue for ESG Investments</p> <p>- 대형 기관투자자, 기업 및 공적 연금 등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형 기업들에 ESG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트렌드는 ESG 실제 성과에는 상관없이 대기업들이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값비싼 ESG 표준 및 공개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스몰캡 섹터가 ESG 투자 미개척지로 급부상하는 상황 (Institutional Investor)</p> <p>- Ranger Investments의 스몰캡 부문 CIO, 현재 많은 중소 기업들이 ESG에 대해 유의미한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그 성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 특히 이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 Valentin INDEFI 시니어 컨설턴트는, 작은 시총을 보유한 기업에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p> <p>https://bit.ly/3wjVGG</p>
6/7	<p>\$8.8 Trillion Asian Investor Group Targets Asia Utilities On Climate Action</p> <p>- 기후 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자그룹(AIGCC), 아시아 주요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과 함께 ▲탄소 배출 감축 ▲ESG 정보 공개 강화 ▲기후 관련 위험 통제 작업에 돌입. 이는 아시아 지역의 Climate Action 100+ 프로젝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p> <p>- AIGCC가 첫 해에 포커스 맞추게 될 기업은 ▲China Resources Power Holdings (중국) ▲CLP Holdings (홍콩) ▲Chubu Electric Power Co. (일본)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J-POWER) (일본) ▲Tenaga Nasional Berhad (말레이시아)</p> <p>- 해당 기업들은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석탄 화력 용량이 크거나, 탄소 중립 전환에 있어 전략적인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정. 참고로 위의 5개 기업은 2019년에 총 2.85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스페인 같은 나라의 국가 배출량과 비슷한 규모</p> <p>https://bit.ly/3gpaG8y</p>
6/10	<p>Investors holding \$41 trillion demand action on climate — now</p> <p>- 피델리티, SSGA 등 450명 이상 투자자들이 10일(현지시간) 정부에 기후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관련 서한을 보냄. 해당 서한에는 ▲정부의 탄소 배출 목표 설정 ▲오염도가 높은 기업들의 더욱 구체적인 명확한 탈탄소 로드맵 공개 ▲기후 리스크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실행 등의 내용이 담김</p> <p>-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펼치는 곳은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는 반면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점차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 그렇기에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목표, 정책 행동, 리스크 공개 등에 있어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국가별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p> <p>https://cnn.it/2TFRSRk</p>

▲ 채권 시장

6/7	<p>[Go-ESG] 산업은행, 2,500억원 규모 원화 사회적채권 발행</p> <p>- 산은, 코로나 19 사태 지속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및 고용불안정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원화 사회적채권 2,500억원 발행을 완료했다고 발표</p> <p>- 산업은행은 이번 사회적채권 조달자금을 코로나 19 사태 지속으로 인한 피해극복 중소기업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지원할 예정.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회개선 기여도는 향후 투자자안내문을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p> <p>https://bit.ly/2RzwAO0</p>
6/8	<p>올해 아시아 ESG 채권 발행 691억 달러...사상 최대</p> <p>- 올해 들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한 ESG 채권이 사상 최대 규모인 691억 달러 기록. 아시아의 기업과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의 ESG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 들어 미국의 발행 규모를 앞선 것 (레피티비터 데이터, Reuters)</p> <p>- 691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 비중을 살펴보면, 녹색 채권 70%, 지속가능경영 채권 20%. 국가별로는 중국 51.3%, 한국 21.2% 순</p> <p>- 아시아 지역의 ESG 채권 발행 급증 원인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기관의 의도와 투자자의 ESG 채권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의 아시아 투자 선호 현상 발생 등이 손꼽힘</p> <p>https://bit.ly/3isstyD</p>
6/8	<p>'ESG 연계 채권' 투자 상품 나왔다</p> <p>- 타이거대체투자운용, 지난달 '타이거대체그린알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5호'를 설정. 이로써 국내에서 기관투자자가 ESG 연계 인수금융 대출에 투자한 첫 사례가 등장. 해당 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이 실행한 플랜더(풍력발전)에 사용되는 기어박스 제조 업체) 인수금융 2조 7000억원 중 1000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p> <p>- 플랜더 인수금융은 ESG를 대출의 평가 요소로 반영한 지속가능연계대출(SLL)로, SLL은 돈을 빌리는 기업이 미리 정한 ESG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p> <p>https://bit.ly/3ctDlBw</p>
6/10	<p>하나은행, 6억달러 규모의 ESG 채권 발행</p> <p>- 이번 하나은행의 ESG 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가 결합한 형태로 2019년 1월 6억 달러 규모의 공모 채권 발행 후 약 2년 6개월 만에 발행되는 미달러화 공모 채권. 만기는 5.5년이고 발행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금리에 0.55%포인트를 가산한 1.25%. 발행 자금은 국내외 친환경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채권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할 계획</p> <p>https://bit.ly/3iA4yNz</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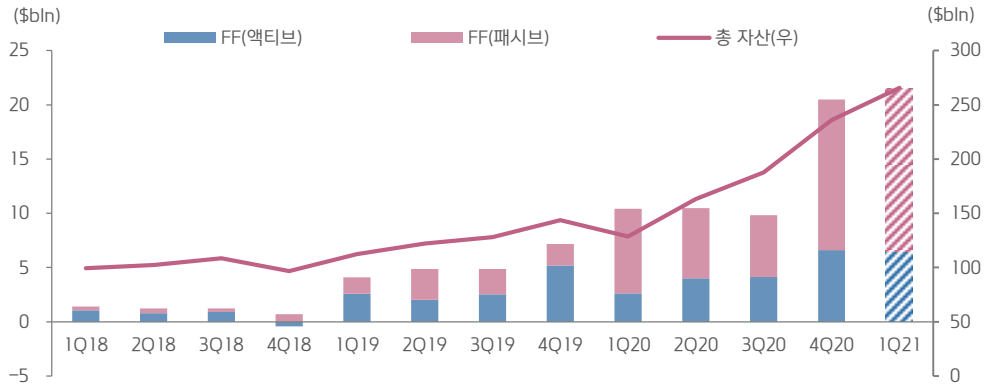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 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 특히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예정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월 경	유럽	공급망 실사 의무화 입법안 제시	- EU,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하는 입법안 제시 계획 - 앞서 3/10 EU 의회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 채택
상반기 내	한국	K-텍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텍소노미 마련 - ESG 中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년까지 탄소 55% 감축을 위한 전략이 담긴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는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제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21년 2분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개정, 에너지 관련 세금 조정, 차량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대체 연료 인프라 개발 관련 규정 등의 내용 담긴 초안 공개될 예정. 이후 '21년 4분기에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 ▲탈탄소 가스 시장 규제 위한 제 3차 에너지 패키지 개정안 초안 공개 계획
3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중국-EU	중-EU 텍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텍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하반기 중	한국	K-ESG 평가지표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연 내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 정부, 올해 안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추가 상향 계획 -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발표 예정
	한국	ESG 포털 구축	-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도록 ESG 정보공유 플랫폼(ESG 포털) 구축 예정 - 더불어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와 투자성가를 연동한 지수와 ETF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ASEAN 텍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텍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행 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텍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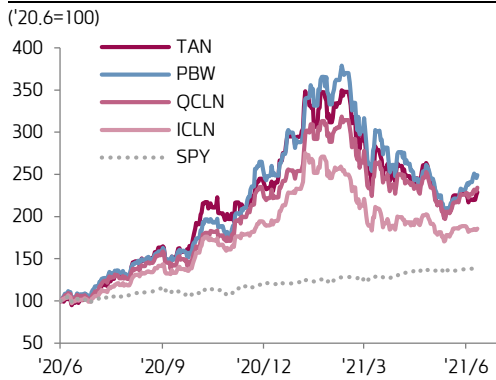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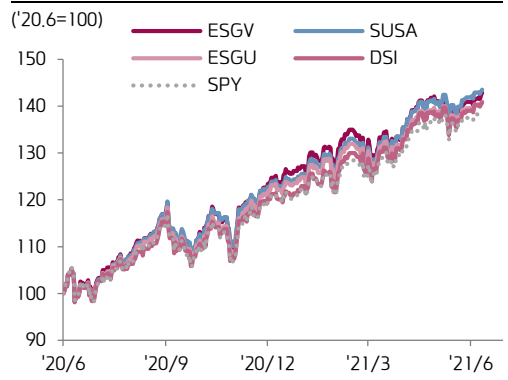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3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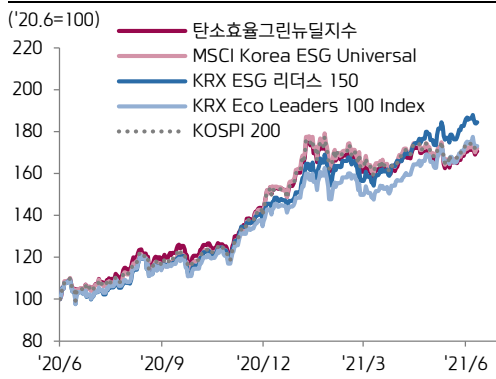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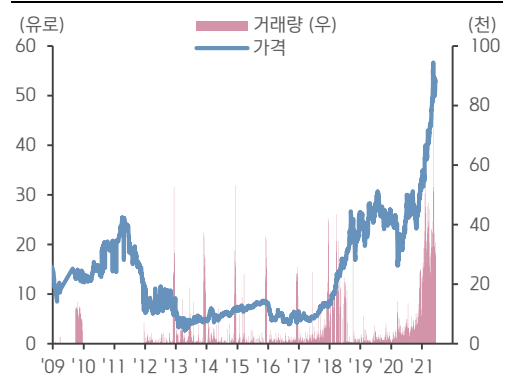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17,833.1	+0.4	+3.8	+7.3	+41.6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758.5	-1.3	+6.7	+3.1	+41.7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011.8	-0.8	+3.6	+6.5	+33.7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6	5,871.3	+1.0	+8.4	-11.5	+86.5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4,616.3	+0.9	+4.2	+7.1	+43.6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661.4	+0.7	+3.8	+8.7	+40.3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565.7	+0.4	+3.0	+8.2	+39.7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212.0	+0.4	+4.0	+8.1	+41.8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200.8	+0.4	+3.9	+8.6	+44.5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2,982.7	+3.9	+15.5	-18.0	+134.4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565.7	+3.5	+18.9	-10.8	+127.8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298.8	+0.1	+5.9	+6.2	+37.1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2,044.2	+3.5	+24.6	-17.3	+139.6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670.6	+0.7	+1.8	+9.3	+48.3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380.5	+0.6	+4.0	N/A	N/A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298.8	+0.5	+1.2	+1.4	-1.6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	1,121.1	+0.4	+3.2	+7.8	+39.6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17.0	+0.1	+0.3	+0.7	+1.3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7	1,017.0	+0.7	+2.5	+7.4	+53.4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007.4	-0.6	+0.7	+7.0	+37.6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970.6	+0.8	+4.8	+11.4	+47.4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960.6	+1.7	+5.6	+1.8	+66.4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956.0	+2.0	+6.3	+2.3	+71.5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36.8	+4.8	+16.9	-10.7	+93.9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932.1	-0.1	+10.1	+4.2	+101.6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903.8	-0.8	+6.5	+3.3	+36.1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30.3	-0.3	+3.7	+6.4	+38.2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754.9	+1.0	+2.0	+3.1	+1.4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705.6	+1.5	+7.1	+8.4	+45.1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18.4	-0.2	+4.1	N/A	N/A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606.4	+0.7	+3.6	+8.7	+40.1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00.8	+1.1	+4.2	+3.6	+47.9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69.1	+2.0	+10.5	-0.7	+59.9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67.3	+0.6	+3.0	+7.8	+44.4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39.3	+0.7	+3.7	+7.8	+42.1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436.3	+3.7	-1.4	+18.0	N/A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417.3	+0.1	+6.5	+4.9	+71.1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08.6	+1.0	+14.3	-9.7	+100.4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399.1	-0.6	+10.6	+6.9	+80.9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93.1	+2.2	+11.7	-15.0	+113.6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92.9	+0.2	+4.8	-1.7	+53.0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19.9	+2.2	+7.7	+5.3	+46.9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4.9	+1.9	+12.5	-5.7	+93.3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286.8	+0.4	+3.1	+11.9	+39.1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283.2	+0.5	+1.0	+1.3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6-11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259.8	+0.5	+4.7	+8.5	N/A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52.9	+0.5	+1.0	+0.9	-3.2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46.3	-0.5	+0.9	+7.0	+53.9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38.7	+0.3	+3.7	+4.3	+42.8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38.4	+0.5	+3.4	+7.7	+40.2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224.1	+0.6	+3.3	+8.3	N/A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23.1	+0.4	+3.6	+6.6	+33.8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14.1	+0.6	+1.4	+0.4	+0.9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09.5	+1.4	+14.7	+3.1	+79.8
IJ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199.7	+0.5	+0.9	+1.4	+0.5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196.9	+0.5	+4.9	+7.4	+35.7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189.5	+1.9	+16.5	+5.6	+94.1
EEMX	SPDR MSCI Emerging Markets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	180.8	-0.8	+6.1	+1.8	+40.6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76.6	+0.8	+4.7	+8.5	+39.6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172.8	-0.4	+4.3	+6.4	N/A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71.2	+0.5	+3.4	+7.6	+40.9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170.5	+0.9	+2.0	+3.0	N/A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64.8	+1.1	+5.1	+4.3	+49.8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55.7	+6.7	+25.7	+4.7	+127.8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4	153.0	+0.0	+0.0	+0.0	+0.3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52.0	+1.5	+5.5	+9.0	+38.1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8.7	+0.3	+3.3	+7.7	N/A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33.4	+2.5	+14.4	-16.2	N/A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29.1	+0.9	+8.1	+0.2	+15.7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	126.9	+0.2	+4.7	+7.0	+35.8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8.1	+2.2	+7.4	+5.9	+35.1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4.3	+0.3	+3.6	+6.4	+39.6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ETF	사회책임, ESG	0.35	109.8	+0.4	+0.7	+1.2	+5.3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95.4	-0.4	+7.2	+4.2	+50.3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0.5	+0.3	+0.8	+1.4	+0.2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89.1	+0.1	+0.1	+0.1	+3.6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84.0	+0.4	+3.3	+7.8	+43.6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75.5	+1.5	+2.8	+8.1	N/A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74.5	+0.3	+3.2	+7.9	N/A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69.5	+1.3	+4.7	+7.6	+44.3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2.9	+0.1	+1.1	+6.9	+57.5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55.8	+0.7	+5.0	+6.9	+43.4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45.2	-0.5	+2.7	+9.5	+46.5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5.7	-1.1	+6.3	+4.8	+43.3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4.5	+0.9	+13.1	N/A	N/A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4.1	+1.1	+4.9	N/A	N/A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31.1	-0.3	+18.5	-17.1	N/A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30.7	+0.7	+2.4	+4.0	+3.9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0.2	+0.5	+2.3	+3.5	N/A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 ESG	0.12	29.8	+1.0	+2.1	+3.1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6-11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9.8	+0.4	+3.4	+7.0	+41.4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5.9	+0.7	+3.7	+7.0	+51.5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5.8	+0.5	+3.5	+8.1	N/A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5.8	+0.7	+4.1	+6.9	+42.7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1.3	+0.5	+0.6	+1.0	+6.9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1	+0.4	+3.9	+5.7	N/A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20.1	-0.5	+1.1	+8.3	+34.3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9.2	+0.4	+4.3	+6.9	+31.8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17.7	-0.6	+1.9	+7.7	+45.6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17.7	-0.6	+7.5	+2.9	+41.7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6.8	+1.9	+6.9	+8.4	+14.6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16.1	+3.9	+11.8	+3.0	N/A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8	14.8	-0.8	+7.3	+3.2	+77.1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9	-0.6	+8.8	+5.8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3.6	+0.3	+10.5	+2.6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3.6	+0.3	+10.5	+2.6	N/A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3.1	+1.7	+2.9	+5.3	+20.7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1.0	+0.8	+2.8	+4.6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9	+0.9	+5.4	+0.0	N/A
ACSG	Xtrackers MSCI ACWI ex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6	10.4	+0.1	+5.5	+6.1	+36.5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 ESG	0.12	10.1	-0.1	+3.9	-1.9	N/A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1	-0.5	+3.7	+6.9	N/A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5	+0.2	+7.4	+1.4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3	+1.2	+5.8	+4.3	+41.4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 에너지	0.87	8.4	+0.7	+9.6	-3.6	N/A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4	+1.0	+3.7	+13.9	+39.2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8.0	+0.5	+5.0	+9.1	+30.8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8	+0.5	+3.2	+4.7	N/A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quity ETF	ESG	0.15	7.7	+1.1	+2.1	+2.9	+0.3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6.6	+0.5	+2.4	+7.9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0.5	+2.5	+3.6	N/A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7	-0.1	+2.7	+4.3	+31.8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6	-0.8	+0.6	+9.4	+52.1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6	+0.4	+4.5	+6.5	+40.6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6	+0.5	+2.1	+3.1	N/A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39	5.3	+2.1	+7.2	N/A	N/A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 ESG	0.79	5.0	+1.6	+8.1	+1.4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0	3.2	+0.4	+2.4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9	+1.4	+6.0	+11.7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1.6	+0.6	+4.9	+9.6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6-11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JAl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J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kt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0Cif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0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